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미 근원 CPI가 2년내 가장 적은 폭 상승
- MorningStar:미 신규 실업청구건 2만1천건 늘어난 24만8천건
- CNBC: 미국인 평균 크레시 카드 부채는 약 6천불... 10년래 최고

#### [부동산]

- CNN Business: 맨해튼 임대료, 4개월만에 세번째로 최고치 기록

#### [물류]

- Bloomberg: “장기적으로 해상 컨테이너 요금 더 오를 듯”

#### [교육]

- CNBC: 아이비리그 법대졸업생 연봉 20만불 이상 벌수 있다

#### [미중 관계]

- WSJ: 중국 투자 금지후 미·중 관계 더 멀어질 듯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연방 항공국 인력 부족으로 동부지역 항공 운행 줄어듦
- CNBC: UPS, “새 5년 계약안 끝나면 운전자들에 연 17만불 지불”
- Bloomberg: Sony Airbnb호스트 힘겨운 상황이다
- Bloomberg: 디즈니사,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최대 27% 올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re CPI Posts Smallest Back-to-Back Increases in Two Years**

##### **미 근원 CPI가 2년내 가장 적은 폭 상승**

- 미 소비자물가의 주요 지표가 2개월 연속 단지 소폭으로 상승해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오전 연방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 달째 0.2% 상승했다. 이는 2년여 만에 연속적으로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 **도표 Inflation's Downward Path**

•

Bloomberg 기사

#### **MorningStar: U.S. Jobless Claims Rose 21K to 248K in Aug. 5 Week**

## 미 주간 신규 실업청구건 2만1천건 늘어난 24만8천건

- 미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주에 강승해 그동안 견조한 모습을 보인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간 실업 청구건수가 8월 5일에 끝나는 주에 계절 조정치로 24만8천건으로 증가했다고 목요일 연방노동국은 밝혔다. 노동시장이 견조했던 지난 2019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평균 약 22만건이었다.
- 매주가 아닌 4주 평균 건수는 23만1천건으로 증가했다.

MorningStar 기사

## CNBC: Average consumer carries \$5,947 in credit card debt — a 10-year high

### 미국인 평균 크레시 카드 부채는 약 6천불... 10년래 최고

- 미국인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더 신용에 의존하는 상황인 가운데 앞으로 이같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TransUnio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1년전보다 20% 증가했다. 소비자 1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는 5천9백47달러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또한 매달 빚을 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소지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카드 부채가 있는 이들 중에 60%는 1년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것.

CNBC 기사

### [부동산]

## CNN Business: Manhattan rents hit a record high for the third time in four months

### 맨해튼 임대료, 4개월만에 세번째로 최고치 기록

- 7월에 맨해튼 임대료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임대료가 하락하는 다른 지역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 부동산 컨설팅사인 Miller Samuel의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은 4천4백불로 1년전보다 6% 상승했으며 전달인 6월의 4천3백보다 2.3%가 증가했다.
- 맨해튼 1베드룸 중간 임대료는 작년 동월보다 7.4% 상승한 4천2백95불, 2베드룸의경우 4% 상승한 5천2백달러였다. 스튜디오 아파트는 6.7% 오른 3천2백달러 였다.
- 한마디로 올해 임대료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CNN&nbsp; 기사

### [물류]

## Bloomberg: Shipping CEO Sees ‘Green Shoots,’ Says Container Rates Must Rise

“장기적으로 해상 컨테이너 요금 더 오를 듯”

- 지난 1년동안 침체를 보인 컨테이너 운송 업계가 반등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같은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유럽의 주요 선사인 Hapag-Lloyd AG의 CEO Rolf Habben Jansen는 말했다.
- 그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상승세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021년과 2022초에 전세계 상품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해상 화물 회사들은 소비자 수요 급등으로 인해 항구가 정체되고 선박 적재량이 압박을 받으면서 큰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이후 컨테이너 스팟 요금이 2021년 최고치 대비해 최근에는 8배나 폭락했다.
- 그는 “올해초 기업들의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약화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시존 차원에서 정상적인 성수기이며 미국과 많은 신흥시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중기적으로 보았을때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 [교육]

## CNBC: An Ivy League law degree can earn you over \$200,000 a year—grads from this school make the most

아이비리그 법대졸업생 연봉 20만불 이상 벌수 있다

- 아이비리그 5개 법과대학원 졸업생은 졸업후 4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봉이 20만불이 넘는다. 이들 학교는 이튼바 컬럼비아대, 코넬대, 하버드대, 펜실베니아대, 예일대다.
- 물론 이들 고소득 졸업생의 5개 법과대학원중 4개 학교의 평균 부채는 10불이 넘는다.
- 그러나 졸업후 수년내에 20만불 이상 버는 졸업생에게 10만불 부채는 그리 버거운게 아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총액이 예상 초봉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WSJ 기사

### [미중 경제]

## WSJ: U.S. and China Poised to Drift Further Apart After Investment Ban

중국 투자 금지후 미·중 관계 더 멀어질 듯

-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수요일에 발표한 행정 명령은 군사, 감시 및 사이버 능력을 갖춘 핵심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넓게는 중국을 미국의 자본과 전문 기술과 지식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첨단 반도체 및 양자 컴퓨팅에 대한 대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다른 유형의 반도체 및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에 대해 미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 백악관 관리들은 “이 명령으로 미 벤처 자본과 사모펀드가 투자에 따른 노하우, 시장 접근성 등을 중국에 제공치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Airlines will continue to fly fewer flights to New York and Washington as FAA faces staffing shortages**

#### **연방 항공국 인력 부족으로 동부지역 항공 운행 줄어든 듯**

- 연방항공국(FAA) 뉴욕과 워싱턴DC를 운항하는 주요 공항에 대한 항공사들의 단축 운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 일손이 부족한 항공 교통 관제사의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 뉴욕 터미널 레이더 접근 관제소(New York 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의 항공 교통 관제사 부족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3월에 FAA는 이 시설의 관제사 인력이 목표치의 54% 수준이라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 **CNBC: UPS CEO says drivers will average \$170,000 in pay and benefits at end of 5-year deal**

#### **UPS, “새 5년 계약안 끝나면 운전자들에 연 17만불 지불”**

- UPS와 노조Teamsters Union가 지난달 체결한 5년 계약이 잠정 합의가 비준 투표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합의안은 총 34만명의 이 회사 딜리버리 운전자들에 적용된다.
- 회사측은 “ 이번 5년 계약이 끝나면 운전기사들은 급여와 의료, 연금 등을 평균 17만불 정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 **Bloomberg: Is the Airbnb Dream Dead?**

#### **Airbnb 호스트 힘겨운 상황이다**

- Airbnb는 지난 2008년 설립되어 숙박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주택 구매를 통해 이 회사의 단기 임대를 활용하려는 미국인들이 늘어났다. 이른바 숙박 호스트들이다.
-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올 상반기 올랜도와 주변 교외 지역의 단기 임대 숙소의 객실당 수익은 6.4% 줄었다. 캘리포니아의

Joshua Tree 국립공원 인근과 테네시주 Great Smoky Mountains 산맥 인근 숙소들에서는 수익이 각각 17%, 8.7%까지 크게 떨어졌다.

- 이유는,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여유로운 집을 포기하고 도시생활도 돌아가면서 구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면서 임대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임대 숙소 숫자인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Disney Raises Prices for Streaming Services by as Much as 27%

### 디즈니사,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최대 27% 올려

- 월트 디즈니사는 주요 서비스인 디즈니+의 광고 없는 버전 가격을 27% 인상하는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올린다.
- 이 회사는 10월 12일부터 디즈니+의 광고 없는 버전을 현재 11달러에서 한 달에 14달러로 올린다고 어제 수요일 밝혔다. Hulu의 광고 없는 버전은 20% 인상된 18달러로 인상된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재정적자 10개월간 2천109조..."2011년 신용등급 강등보다 위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2천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장기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등급 강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그때보다 부채 문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약 2천108조원)를 기록, 전년 동기의 7천260억 달러(약 956조원)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출이 10% 늘어난 반면 세금 수입은 10%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한해 재정적자는 5월 전망 때보다 2천억 달러(약 263조원) 많은 1조7천억 달러(약 2천2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5% 수준으로 전년(5.5%)보다 올라간 것이기도 하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3조1천억 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7천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재정지원책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22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4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날 발표는 피치가 이달 초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P 이후 12년 만으로,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각에서 피치의 이번 결정을 평가절하하지만 2011년 강등 때와 달리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재정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2010년 그리스와 유사한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지만, 재정적자와 금리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성장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2011년 당시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4% 수준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근접했지만 대규모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장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지금은 민간 투자가 양호하고 실업률도 3.5% 수준에 그치는 등 아무도 장기침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미 국채 10년물의 실질금리가 2011년 제로 수준이었던 반면 지금은 1.7%로 높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1년 유동성을 늘리는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지금은 양적 긴축을 진행 중이며, 금리도 그때와 다르게 정부 재정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금리가 미래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GDP 대비 부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2011년과 달리 지금은 금리는 높은 반면 미래 성장률은 내려간 상태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크다고 WSJ은 덧붙였다.

##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경계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약보합[-0.04%], 금리 하락[-1bp]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7월 소비자물가 반등 전망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이탈리아의 은행 횡재세 한도 축소 등으로 상승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가능성 등으로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의 양호한 수요 등으로 하락

독일은 중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기대 등으로 3bp 상승

## [주요 경제관련 소식]

[미국] 미국 백악관, AI·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부문의 대중 투자 제한

○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의 중국 AI·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

○ 또한 일반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은 중국, 홍콩, 마카오 소재 기업에 적용되며 내년에 시행할 계획

-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기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언

## [유럽] 이탈리아 정부, 은행 횡재세 한도를 크게 축소

- 재무부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해당 규모는 위험가중자산의 0.1%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
- 당초 계획은 횡재세를 자기자본의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은행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부각되자 당국은 과세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

## [중국] 중국 7월 소비자물가, 29개월래 첫 마이너스 상승률.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

-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0.3%를 기록하여 '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
- 다만 이는 예상치(-0.4%) 소폭 상회
- 한편 전월비 기준으로는 0.2%를 나타내 전월(-0.2%) 대비 플러스 전환
-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비 -4.4%로 예상치(-5.4%) 상회

## [해외시각]

- 미국의 은행 건전성, 채권시장은 관련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WSJ
- 미국의 생산성 향상, 인플레이션 완화에 긍정적 - 블룸버그
- 중국의 디플레이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의 위험 요소 - The New York Times
-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으로 대미 수출에서 중국을 대체 - 블룸버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